

폐국균증 (Pulmonary Aspergillosis)의 외과적 치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손제문 · 손상태 · 이재훈 · 강정호 · 지행욱

폐국균증은 국소적으로 발생하거나 공동내에 균종이 형성된 경우에는 내과적인 항진균제 투여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Gerstl이 1948년 처음으로 Aspergilloma에 대한 폐절제술을 시행한 후 외과적절제술의 결과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 대상이 되는 환자에서 동공주위 폐실질내 병변이 광범위하여 늑막의 유착이 심하고 폐문부가 경화되어 있어 수술사망률 및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함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87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폐절제술 후 병리조직검사상 폐국균증으로 확진된 20례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증상 및 증상의 기간, 기존 질환과 그 치료의 유무 및 기간, 술전 단순 흉부 X-선 소견, 술전 진단 방법, 병소의 위치, 수술 방법, 수술 후 합병증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9명 이었고, 20대에서 60대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였으나 30~4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2. 가장 흔한 증상은 각혈로 70%를 차지하며 그외 혈담, 기침 등이 있었으며, 증상 발현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에서 약 10년까지 다양하였다.
3. 기존 병력은 폐결핵이 13례로 가장 많았고 그중 10례는 1년이하의 치료기간을 보이고 있었다. 그외 당뇨가 2례, 백혈병이 1례 있었다.
4. 술전 확진의 방법으로는 세침흡입생검술이 11례, 혈청면역검사가 2례, 객담배양에서 1례가 있었고 객담내에서 확인된 예는 없었다.
5. 술전 X-선 소견으로는 10례에서 공동을 보였고 그중 6례에서는 공동내 균례중 2례는 양측에 발생하여 각각 공동과 폐침윤의 소견을 보였다.
6. 발생부위는 우상엽이 9례, 좌상엽이 5례, 우하엽이 4례, 좌하엽이 3례, 우중엽이 1례였고, 우측 15례, 좌측 7례로 우측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7. 시행된 수술 방법으로는 폐엽절제술이 17례로 가장 많았고 공동절개술도 1례 있었다. 그외 폐구역절제술이 2례, 폐엽절제술과 폐구역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례가 1례 있었다.
8. 술후 조직검사상 14례에서 동반된 병리학적 소견을 보였는데, 13례에서 결핵 및 결핵성 기관지확장증, 1례에서 폐렴 소견을 보였다.
9. 술후 합병증으로는 기관지늑막루 1례, 지속적인 공기누출 2례, 술후 출혈 2례, 사강이 남은 예가 2례, 폐렴이 1례 있었다. 그중 기관지늑막루는 후에 흉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공기누출을 늑막유착술로 술후 출혈은 자연지혈로 해결되었다.